

| 경북교육노조 소식지 2014년 10월 일(6호)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 053-603-3920

Fax. 053-603-3929 www.gbe.or.kr

자명증

회의활동 2면

현장활동 3면

교육활동 4면

연맹소식 5면

총연맹소식 6면

칼럼 7면

종합 8면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 결의대회



경북교육노조
150여명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김종기)은 9월 27 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 결의 대회에 조합원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국 10,000여명의 대한 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조 합원들이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개 악 저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하는 의미로 김종기 위원장은 참회의 삽발식에 참여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70%를 보장하기로 한 도입취지대로 공적연금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 토막 낸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운영하라고 촉구하였다.

제1부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 전원은 서울역을 출발하여, 승례문을 거쳐 청계천 까지 약 1.6Km의 거리 행진을 벌였다. 거리 행진 간 김종기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간 연금회사만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깍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참가 등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2/4분기 경북교육청-경북교육노조 노사협의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 7. 17.(목) 14:00부터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과 2014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총무과 소관 4개 안건,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안건, 학교 지원과 소관 1개 안건으로 총 8개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청측의 교섭대표인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체교섭이후 처음 맞는 협의회이니 만큼 서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의 권익 개선과 경북교육 발전에 일익이 되었으면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노조측 김종기 위원장은 “귀를 열면 듣기는 쉬우나 마음을 열고 듣기는 어렵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쉬우나 편견을 버리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노조제안사항	협의 결과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조례 제정 요구	20년이상 15일 20년만 5일이내 특별휴가 신설(9.18법예고)
행정실장 보직 발령 요구	2015.1.1 실시 예정
사무관 시험시 소양고사과목 상시교육 요구	추후 5급 승진방법 개선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후 추진
시설관리 직렬 결원 해소 방안 요구	결원 충원 방법을 다양으로 검토 중임.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요구	10.30~31 개최 예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요구	11.8 개최 예정
단체협약 이행(노동교육)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에서 이행 관련 공문 시행(7월 22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설치에 관한 사항	통학차량에 자동안전밸트 및 승·하차 보호기 장착운행 하도록 지도

제54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년 7월 9일 제주도 컨설팅 리조트에서 제54차 정기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안건으로 △공무원연금개악 반대 투쟁을 위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100억 투쟁기금 모금 안은 1인당 10만원씩 투쟁기금을 조



제55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년 9월 19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제55차 정기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안건으로는 공무원연금개악 총궐기대회 참석에 대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전원이 동의하여 9월 27일(토) 13시 서울 역광장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날 김종기 위원장은 마무리 당 부의 말을 통해 “이대회는 참회와 복원을 주제로 공무원연금을 2010년 이전으로 복원하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 보장하는 도입취지대로 복원의 취지를 담고 있으며, 용돈수준 국민연금, 원안대로 복원할 것, 국민연금 통합해 도 좋으나 근로기준법 적용할 것,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 규탄, 정부는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운영 할 것 등 경북교육노조 조합원의 염원을 담아 한목소리 높여 와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를 듣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지난 9.13(금)부터 9.19(금)까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교육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교육행정현장의 소리 청취의회를 경북의 23개 시군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9.13(금)경상북도교육연수원(구미)을 시작으로 9.15(월) 경상북도교육 연구원(안동), 9.19(금)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포항)에서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북교육노조의 건의로 교육행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 및 제도, 조직내의 갈등요인 등 학교행정 현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직접 청취하여 경북교육의 완성을 위한 교육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지원청 별로 2명씩 제안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통학용버스 교체 및 임

차요건 완화 △행정실 겸임발령 및 각종 수당지급 정상화 △정원배치기준 재 정정 △사무관승진시험시 기획보고서 폐지 △정기 종합감사 개선 △인사 및 승진 관계에 따른 기시화된 기준마련 및 공개 △교학행정실 업무분장 표준화 △소액 시설공사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학교체계 설계용역 요율변경 △통학버스 대체인력방안 △행정예비인력충원 △병설유치원 인력 증원 등 40여건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경북교육노조와 경북교육청과의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학교행정실장 보직발령과 사무관승진대상자들의 소양고사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번에 발표된 제안사항들을 경북교육청과 함께 검토 분석하여 10.16(목)으로 예정된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과 동시에 김종기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2015-2018 경북교육 발전기획단에 건의하여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1인시위 참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1인시위’ 13일째를 맞아 9월 16일(화) 청와대 인근 호자동 입구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경북교육노조, 대전교육노조, 서울교육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애곡호도 말고 비정상적인 공적연금을 국민과 함께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1인시위는 9월 26일까지 지속될 예

정이며, 다음날 9월 27일에 있을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공노총 총력결의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9월 27일에는 공노총 소속 조합원 5,0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 집결하여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1인시위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원상 사무총장, 조원정 안동지부장, 이영숙 포항지부장, 권기일 예천지부장, 김만일 청송지부장이 참석하였다.

2014년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실시 (경북교육청 현장 맞춤교육과정)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7월 9일부터 제주 켄싱턴리조트에서 2박 3일동안 노동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14년 공무원노사관계교육 경상북도교육청 현장맞춤과정」에 24개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과 위원장을 비롯한 본조 임원 등 5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북교육청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이 공무원복무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참석자 전원과의 대화

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설관리 등 소속직렬의 승진문제, △보직관리규정에 관리운영직군은 퇴직1년전 인사유예조항누락, △소속직렬 무보직 사무관 관련문제, △노조 지부간부 활동문제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문영규 행정지원국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노조와도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2014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장에서 연금법 설명회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7월 21일과 22일 경북교육연구원(안동), 경북 학생문화회관(포항)에서 열린 “2014년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에 참석하여 공무원연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개최한 청렴교육으로 본청 국과장은 비롯한 장학관, 사무관이상, 직속기관장과 사무관이상,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사무관이상간부와, 각급학교장 및 사무관 이상 행정실장 등 약 1,270명이 이틀간 안동(400명), 포항(870명)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공무원연금설명은 “공무원연금의 이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김종기 위원장의 연금법 설명이 이어졌고, 설명

자들이 퇴직 후 받는 유일한 생계대책이며 생존권이며 국가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에게 허리띠를 줄라매고 열심히 일하면 퇴직 후에 밥은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부의 약속이었다”면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키기 위한 희생이 따른다면 노조가 앞장 서고 간부가 희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국민들은 마치 공무원들은 한푼의 부담도 없이 20년이나 퇴직하면 많은 돈을 연금으로 평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서 “연금 문제는 노조만의 일이 아닌 공무원 전체의 일이라면서 경북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 설득과 함께 직장내 직원들이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경북교육노조 임원들은 참석자들에게 조합원들 배포용인 노조 소식지 “자명종”과 “공무원연금개악반대 후원금 안내문”을 함께 배포하였다.



영남지역 교육청노조임원 워크숍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9월 12일(금)~13(토) 이틀간 대구교육해양수련원(포항시 칠포)에서 개최된 제4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등 5개 노조에서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주관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준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등 5개 노조에서 50여명이 참여하였다.

영남지역 교육청노조 워크숍은 영남지역 교육청공무원 노조 간부들의 친목 도모와 연대력 강화로 노조활동의 성과 제고 및 투쟁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해 8월에 경북교육노조가 개최를 주관한 이후 이번이 4회째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노조별로 참석자 소개



“행정실 직무분석 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이 7월 16일(수) 노조사무실에서 한국지방발전연 구원과 「전국 각급 학교행정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분장 및 직무분석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약 5개월간에 걸쳐 학교 행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 관련 법령 및 제도분석,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행정직원의 운영실태에 관한 실증

경북교육노조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방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대구지역공무원노조(대구시청, 경북도청, 대구교육청, 대구북구청, 구미시청)와 함께 9.3(수) 10시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주호영의장(대구수성을)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마치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국민들 모두 친인척이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국론까지 분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함께 참석한 이철우의원(김천)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며,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자”고 하였다. 면담은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공노총 당면과제 논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노총')은 7월 16일(수) 광화문소재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윤상현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재정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상시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공노총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 △대정부단체교섭 재개 협조 △타임오프제 도입 △6급근속승진 및 당면 현안사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구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

회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 82조~264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여 복지정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

누리당과 상시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마

련해 공노총 현안사업에 대해 지속적으

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오재형 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

장으로서 7월 15일(화)~17일(목)까지 안

전행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의

원들을 방문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노총 의견을 전달하는 대국회 활동을

계획을 세웠다.

조진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사

전개했다.



미혼모 지원시설 봉사활동 전개

공노총은 7월 22일(화) 안전행정부와 함께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후원물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애란원 방문은 네 번째로, 시설에 서 부족한 각종 유아용품을 전달하고 일손을 돋기 위해 식당 주방 대청소를 실시했으며 이후 애란원의 현황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항의방문

공노총은 8월 8일(금) 공적연금 개악을 시도하려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보도자료에 대대 강력히 항의하며 새누리당사를 긴급방문했다.

새누리당은 같은날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위가 실무를 주도하고 당정책위가 받치는 형태로 당 차원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발의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각종언론에 밝혔다.

또한, 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 을 맡아 개혁안의 밀그림을 그렸으며 현재는 개혁안을 매듭짓는 단계라고 보도됐다.

이에 공노총은 8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공적연금의 직접 이해당사인 공보도자료에 대대 강력히 항의하며 새누리당사를 긴급방문했다.

공노총은 앞서 8월 8일(금) 긴급 중앙집행위원 및 연금위원회를 거쳐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하고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당사진입이 거부돼 당사 입구 점거에 나섰으며 당사 관계자에게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당사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면담일시를 알려줄 것"을 약속했으며, 이에 공노총은 시일이 늦어질 경우 공노총 산하 단위노조와 함께 전력 투쟁할 것을 전달하고 5시간 동안의 입구 점거를 해제하고 해산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면담 촉구 항의방문

공노총은 8월 12일(화) 오후 3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당사에 항의방문했다.

공노총은 앞서 8월 8일(금) 긴급 중앙집행위원 및 연금위원회를 거쳐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하고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거부하며, 추후 당론이 결정된 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공노총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나 이미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경제

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은 보도가 나왔기에 원내대표와 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공적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유일법내 노조인 공노총과 협상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다시금 요구했으나 면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공노총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 몇 차례 진입을 시도하며 투쟁에 대한 결의를 보였으며, 추후 투쟁일정을 계획하며 다음날인 13일(수) 해산했다.

세월호에 비정규직은 있었고 노동조합은 없었다

— '과적'된 신자유주의와 '전복'된 상식에 관한 소고

상식은 권리 갑(甲)들의 담론인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도 상식이 진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권력은 자신의 언어

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실을 숨기고 비틀어버린다. 힘의 논리가 언어를 지배한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드는 생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라는 맷장 구름 아래 진실마저 짓눌려있다.

"세월호의 살인자는 선장이 아니라 신

자유주의다".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 교수의 지적이다(그는『피로 사회』란 책을 썼다). 세월호는 신자유주

의, 그것도 부패한 신자유주의를 '과적'했

다가 전복됐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복

제품이다. 민영화, 규제완화, 비정규직 등

이 신자유주의의 표현이라면 그 바탕에

는 '관피아'로 상징되는 정경유착이 빠리

를 틀고 있다.

"속옷 바람으로 도망치는 어처구니없는 선장"은 세월호의 악마라 불린다. 선

장을 변호할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다. 선

장은 69세의 1년 단위 계약적이었다. "고

물배를 고용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장시

간에 걸쳐 키를 잡은" 그에게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직업의식을 요구하는 건 무리

가아닐까. 그럴 양이면 선장의 자리에 정

규직을 앉히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 아

닐까. 이번 세월호 핵심 부서인 갑판부와

기판부 선원 17명 중에 12명이 비정규직

이었다. 선장 외에도 항해사 조타수 기관

장기관사 조기장 조기수 등이 줄줄이 비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배가 가리앉으니

자기들 살 궁리만 할 밖에. 유연하고 양극

화된 노동시장을 놔둔 채 선원들을 마녀

아빠는 '의식화된' 전문 시위꾼이라는 논

사상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

는 것은 아니다.

급기야 김영오씨가 금속노조 조합원

이라는 사실에 대해 변명을 하고 나섰다! "충남 지부 금속노조 조합원인 거는 맞는데... 작년 7월 22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구요. 머리를 뒤나고 처음으로 노조 조합원이 되어 봤습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에 가입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조간부도 아니며, 주말 특근하

라 평일 임업하라, 그럴 여유가 없어 금속노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사실

도 덧붙였다.

화가 날 노릇이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왜 변명해야 했을까. 만일 노조가 있으면 김영오씨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게 외려 변명할 건건지가 돼야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12시간 맞교대에다

작업 특근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장시간 노동을 했다면, 그러고도 월 2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면 우리사회는 그런 걸 도마 위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직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도 쟁고 까불어야 하지 않을까.

은 김영오씨에 대한 조합원 시비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46일이

나 단식을 한 '유민아빠'가 바로 그다. 그

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우리사회는 이만큼 천박하고 상스럽다) 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기들 살 궁리만 할 밖에. 유연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놔둔 채 선원들을 마녀아빠는 '의식화된' 전문 시위꾼이라는 논

조가 번져갔다.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고통스런 과거

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상은 밝혀야 한다. 그 방안은 특별법을 통해 전국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성을 모두 동원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되 거

기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고용의 유연화(비정규직)와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도 포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우리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아니라 민



주주의의 발판이며 안전의 보루라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아래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적인 가치가 시장원리(신자유주의) 앞에서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화두로, 또는 그 대안으로 공공성이 조명을 받는 것이다.

공공성은 시장의 원리, 성장중독·돈중독의 논리에서 벗어나 참여와 공감에 바탕을 둔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을 말한다. 공감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면 참여의 통로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제 목소리를 갖는다면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지시와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고 개혁하는 주체가 된다.

세월호만 전복된 것이 아니라 상식마저 전복됐다. 세월호는 화물만 과적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도 과적했다. 이제 '새로운 배'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밝혀야 수술도 가능하다. 세월호에서는 자리를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했다. 세월호의 침몰이 대한민국 회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어 될 일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맹골수도를 지나는 중이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조의 이름으로 나서야 한다. 더욱이 세월호에서는 승객의 다수가 학생이었고 그들이 희생됐다. 교육청 노조원은 교육의 주체고 공무원 노조는 공공성의 실현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공무원노총 정책자문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주요 경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T/F팀장(비서관)

서울시기념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대자동차 노사자문위원회 대표

한국GM 노사자문 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한국산업노동대학원 회장

주요 논문 및 저서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공저, 연구책임자, 한국노동교육원, 2006)

■ 「현대자동차의 세계화전략과 노동조합의 저항적 실리주인」,『산업노동연구』, 제15권 1호(2009)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저항적 실리주인」,『동향과 전망』, 제76권(2009, 여름호)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재생전략의 과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산업노동연구』, (2010)

■ 「주간연속 2교대제 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산업노동연구』, (2009)

동행(同行)

자연에서 배우는 위기대응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스승이
라고 한다. 자연은 수
십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를 형성하여 위협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최적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다는데
(삼성경제연구소),

첫째는 자율성이다. 자연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위험을 감지하는 요소
가 중앙의 통제를 기다리지 않고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추고 있다. 둘째는 모듈화이다. 자연
은 많은 생명체는 내부 구조를 구획
별로 분리함으로써 유기체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는 존속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포유류의 면역 체계는

몸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구
역별로 방어하고 있다. 셋째는 가변
성이다. 생명체들은 상당한 행동 변
화 및 변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위험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적절히
변화시켜 대응한다. 넷째는 임여이
다. 자연은 하나의 요소가 기능을 하
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그 기능을 대
신 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준비해두
고 있다. 다섯째는 협동이다. 생명체
들은 대내외적으로 협력 관계를 수축
함으로써 적의 위협이나 환경의 혹독
함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같
이 자연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실제적
으로 인간은 운영하고 있거나 사용하
고 있는데, 일례로 선체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파손으로 침수가 될

때 격벽을 설치하여 더 이상 침수되
지 않도록 하는 것과 선체 하부에 일
정량의 물(평형수)을 저장하여 기울
때 정상으로 복원 되도록 하는 것 등
은 자연에서 배운 위기 대응 시스템
의 응용이다. '위험사회'의 저자 윤리
히 베은 한국에 대해 "예기치 못한 위
험 요소 앞에 일종의 '조직화된 무책
임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기관이
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신
뢰를 잃으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된다"
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나지자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컨트롤하는 조직을 두고자 하는데 그
보다 앞서 자연이라는 스승으로부터
한 수 배우면 어떨까?



알려라 권리분!

제13회 특혜의 배제

- 공무원 행정강령 제6조



평소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부려온과 칭찬을 받던 시시 도시개발 국장은



남모를 걱정이 있었습니다. 늦둥이 동생이 실직되자, 부모님이 계속 동생의



취직문제를 말씀하셨기에, 평소 직무 관계로 알게된 친한 건설사 장에게



절대 비밀을 지켜 달라는 약속을 하고 동생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그의 이런 행위는 직무를 수행할 때 협연,
지연, 학연 등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배제를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런 특혜가 통용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혜와 느낌이 있는 공간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 했더
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 날엔 지금
이 바로 그 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눈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에 욕심 자
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
각 비뚤어진 것은 보지 못하네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고 밝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때문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귀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남을 칭찬하는 소리엔 저절로 활짝 열리고

남을 욕하는 소리에 금방 닫히는 그런 예쁜 귀를 가
졌으면 좋겠다.

칭찬보다 욕이 많은 세상에 한 쪽 만을 가지더라도
그런 귀를 가졌으면 좋겠다.

- 좋은 글 중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자명종'에서는 조합원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나누고 싶은 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글을 03ina@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한_수시접수

분량_200자 원고지 10매이하

또는 A4 2장 자유분량

장르_시, 수필, 칼럼, 논평등 제한없음

※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과 필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일정 안내

- 2014.10.16.(목) 2014년 3/4분기 노사협의회 실시
- 2014.10.30.(목)~10.31.(금)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 2014.11.1.(토) 공적연금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실시
- 2014.11.5.(수) 경북교육노조 제2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14.11.8.(토) 제9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